

■보성 녹차밭 은하수 터널 1만명 소망 쪽지



1만여명의 새해 소망이 내걸린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녹차 밭 '은하수 터널'. 지난 9일 '은하수 터널'을 찾은 한 가족이 새해 희망을 담은 '소망의 쪽지'를 매달고 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소박한 염원들 '주렁주렁'

한 겨울에도 진녹색의 푸르름을 잃지 않는 보성 녹차밭에 1만여명의 소망을 담은 터널길이 생겼다. '우리 딸, 올해 임용고시에 꼭 합격하길 바래' '연봉 1억원에 도장 찍게 해주세요' '건강한 쌍둥이 낳게 해주세요'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녹차 밭을 찾는 관광객들이 새해 소망을 담은 1만여개의 쪽지를 '은하수 터널'에 매달았다. 높이 3m, 폭 2m, 길이 200m의 아치형 '은하수 터널'에 내걸린 소망 쪽지에는 소시민들의 소박하고도 애뜻한 사연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 터널은 구립 14일부터 시작돼 오는 2월 28일까지 열리는 '보성 차밭 빛의 축제'의 행사 중 하나로 조성됐다.

지난 9일 현재 1만여명의 관광객들이 하트 모양의 쪽지에 자신의 새해 소망을 적어 '은하수 터널' 펜스에 매달았다. 어린이에서 할아버지·할머니까지 연령대는 다양해도 소망은 한결같다. 가족과 친지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을 비롯, 취직·승진·대학입시 합격같은 개인적인 희망과 포부, 부부와 연인간 영원한 사랑 약속 등 보통사람들의 애환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여보, 지난해 고생 많았어. 새해엔 더 사랑하면서 살자' '○○치킨 장사 잘 되길 바랍니다' '돈 벌라 맞'



길 소원합니다' '술과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태안 앞 바다 기름이 어서 없어지길...' 등.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는 특 특 특는 새해 소망도 내걸려있다. '예쁜 딸 있습니다. 사윗감 되실분 연락 바랍니다. 061)744-7×××'

'귀차니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군대 가산점 부활해서 가산점 받아 보는 게 소원입니다' '은하수 터널을 걷는 연인은 더 깊은 사랑을 주고, 여기 걷는 불륜은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헤어지길 바랍니다' 등 이색 소망도 많다.

'아빠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갈 수도 있도록 기도합니다' '엄마가 곧 수술하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재발 우리 아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대를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등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

어린 아이들의 순박함이 묻어나는 소망 쪽지도 있다. '엄마가 귀신처럼 무서워요. 전사표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술 마시면 허느니까 술 마시지 마세요' '하루빨리 커서 비행 조종사가 돼 엄마·아빠 모시고 하늘 구경 가고 싶어요' '컴퓨터 게임 하게 해 주세요' '운동회 달리기 대회서 1등 하게 힘을 주세요' 등 천진난만한 내용이다.

이날 '은하수터널'을 찾은 관광객 홍승표(46)씨는 "한겨울 녹차밭이 날라갈 거라 보듯 보통사람들의 소망 쪽지 읽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어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앞서 남부경찰은 지난 8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주택가에 '알라딘 골'

가난한 전남, 기부는 최고

모금 증가율 전국 1위... 광주 '사랑의 온도탑' 75도

'공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꼭 들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노령화된 전남지역의 모금 실적을 보면 그렇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날 말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인 '희망2008 나눔캠페인'에 모금된 금액은 10일 현재 31억9천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에 비해 무려 10억1천만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비율로도 46.6%나 늘어 전국 16개 시·도중 부동의 1위다.

전국적으로 모금된 금액은 1천60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억 원이나 늘었다. 이날 현재 기업이 기부한 금액은 1천600억 원 중 1천599억 원으로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기부는 541억 원인 33.8%. 개인 기부에 포함되는 ARS 모금은 3억3천만 원으로 지난해(3억6천만 원)보다 조금 줄었다.

모금 액수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는 10일 현재 광주가 75도, 전남은 73도, 오는 31일까지 목표

액을 모두 채우면 100도가 된다.

지역별 모금액은 서울이 108억5천만 원으로 1위이며, 충남 60억1천만 원, 경북 52억 원, 경기 39억6천만 원, 부산 32억2천만 원, 전남 31억9천만 원, 광주 10억5천만 원이다. 전남의 모금액이 2위에 오른 것은 태안 기름유출사고 성금 담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금 사연도 다양하다. 지난 8일 신안군과 장성군 국민생활지원과 공무원들이 각각 군정업무와 기초생활보장업무 평가에서 우수 점수를 획득해 지원받은 360만 원을 기탁했다. 또 지난 2일엔 장흥 대덕읍 노인일자리 사업단 노인 28명이 함께 '팔 등을 팔아 수익금 69만4천390원을 기부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금철 부장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모금 홍보 활동을 한 달 가량 일찍 시작한 결과 주민들의 참여가 초반부터 이뤄져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랑의 온도탑'에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이 모금액수에 따라 온도를 높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나원침 (7406) 김종두



불법 사행성 게임장 잇따라 철폐

주박가와 상가 등지에 게임장을 차려 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업주 등 2명을 불잡았으며, 관광경찰도 지난 4일부터 같은

기종의 게임기 46대로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 등 2명을 검거했다. /이중형기자 galee@kwangju.co.kr

드'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최근까지 영업을 해온 업주 등 2명을 불잡았으며, 관광경찰도 지난 4일부터 같은

기종의 게임기 46대로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 등 2명을 검거했다. /이중형기자 galee@kwangju.co.kr

56억원 회령 회사 대표 징역 10년·자격정지 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유숙)는 10일 56억원의 회사 자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여수 GS산업 대표 김모(여·44)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5억원과 미화 5만1천여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배임수죄)로 기소된 GS칼텍스 토목담당 이모(5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 회사 전 상무 나모(5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56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뇌물 등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보이스 피싱' 역대 가로철편 중국인 2명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 단독 송화호 판사는 10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을 통해 1억3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임보우정(29)씨와 초이웨이권(40)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오모(29)·이모(여·36)씨에게는 벌금 250만~3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며 역할을 분담해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횡수나 피해금액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

Advertisement for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 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상담' (062)233-5119

기자 사칭 내연남에 수천만원 뜯어

○광주 북부경찰은 10일 기자를 사칭,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내연남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무모(여·42)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5년 2월 내연남 최모(50)씨에게 기자를 사칭하며 장애인 등록증과 광주 수원지구 농수산물유통센터·국군통합병원 자동판매기 운영권 등을 받게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8천9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최씨에게 자신이 모 중앙일간지 광주시청 출입기자라고 속였으며, 시청 간부들과의 친분도 과시했다.

○3년 여 동안 최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행각을 벌여온 유씨는 최씨의 고소로 경찰에 탐미. /이중형기자 ga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영광 법성포 꿀비 구정맞이 직송판매' (Yeonggwang Byeongsopo Honeycomb Direct Delivery) featuring various honeycomb products and prices.